

## 한솔건설(주)한솔센트럴파크타워 신축공사현장

### 『MTMSafety·감성안전관리』로 재해율 Zero 신기원 창출



▲ 차승규 소장

**따**사로운 햇살과 차갑지 않은 바람이 느껴지면서 옷깃마저 가벼워진다. 도로에는 아지랑이까지 아물거리며,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봄이 오는 소리에 거리의 건설현장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움직임마저 활발하다.

오늘 찾은 곳 역시, 봄의 활발함 속에서 무재해를 일궈내는 건설회사로, 2003년도 전 현장에서 무재해를 달성해 “재해율 Zero”의 신기원을 기록한 한솔건설(주)이다.

정부(노동부 등)나 다른 건설회사 마저도 신기원 달성에 대해 주시하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재해율 Zero라는 신기원을 달성한 데에는

**감성(感性)안전 STEP 1**  
**정(情)만들기**  
조건 없이 배풀기 서로 존중하기  
SOLPARK  
한솔센트럴파크타워현장

**감성(感性)안전 STEP 2**  
**WIN-WIN**  
즐거움 마음, 전체의 웃음!  
SOLPARK  
한솔센트럴파크타워현장

**감성(感性)안전 STEP 3**  
**아집(我相)버리기**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  
내 생각이 맞다는 생각!  
SOLPARK  
한솔센트럴파크타워현장

## 건설안전리포트

1999년부터 전사적으로 추진해온 M.T.M Safety 운동과 감성 안전관리가 큰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그 중 감성안전관리가 새롭게 눈에 띄는데, 감성안전관리 시범 현장으로 무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한솔 센트럴파크타워 신축공사현장(차승규 소장)”을 찾아 감성안전을 비롯해 이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활동에 대해 들어본다.

### 인간성을 중시하는 『감성안전관리』

인본주의의 바탕으로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바람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감성안전관리』는 근로자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강압적이고 타율적인 지시보다는 인간의 정을 중시 여기는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추구한다.

감성안전의 주요 사항으로는 근로자 스스로 안전관리하는 조직 육성과 인간적인 관계유지, 베푸는 조직 문화 정착 등이 있다.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에서 근로자의 의욕을 돋구어 주는 미점 응시(美点凝視)관이 포인트이다. 이르기 위해서 시공사의 직원과 근로자들간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하며, 소속감과 공동의 목표의식을 최우선으로 꼽는다.

하나가 되기 위한 이곳 현장에서의 노력은 남다르다. 이직율이 높은 건설현장 특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 하루를 현장에 있더라도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심



어 주기 위해, 다채로운 이벤트와 동기부여를 위한 행사가 이루어진다. 현장에서의 축구, 농구, 가족사진 콘테스트, HOFDAY 등은 감리단에서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가족처럼, 친구처럼 가까워지기에 충분했고, 이름부르기, 존댓말 쓰기, 상담실 운영, 생일잔치 등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심취를 심어주기 흡족한 운동이었다.

무재해 준공을 얼마 남기지 않은 차승규 소장은 다음 현장인 지하 7층, 지상 37층의 부친상동비잔티움주상복합현장에서 『감성안전관리』를 더욱 보완·발전하여 한솔건설(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현장에 뿌리내릴 안전관리기법으로 정립한다는 각오다.

### 재해율 Zero의 기틀이 된 『M.T.M Safety 운동』

한솔건설(주)는 2003년을 재해율 Zero로 이끌어 온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그 밑바탕에는 1999년부터 전사적으로 추진해온 M.T.M Safety 운동이 있다고 차승규 소장은 말하며, 이곳에서 가장 위험했던 지하 작업 공정에서도 이 M.T.M Safety 운동으로 인해 무재해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한다.

‘MANTOMAN Safety’를 의미하는 MIM Safety 운동은 조직 및 직책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직무 영역, 책임, 권한 등을 부여하여 각자 맡은 안전 책임 구역을 매일 철저히 점검하며 사전 예방에 힘쓰는 소집단 활동이다.



###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운동 전개

현장을 취재하면서 대부분의 안전활동이 근로자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안전시설, 안전교육만을 중시 여기는 이 곳은 타 현장과는 사뭇 다르다.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현장 근로자의 가족과 연계된 안전활동을 이 곳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그 한 예로, 가화만사성 운동이 대표적이다. 이는 차승규 소장이 평소 즐겨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다. 근로자가 어떠한 안전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가족들에게 상세하게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여 알려줌



으로써 걱정을 줄여주고, 매주 수요일은 정시 퇴근시키며, 분기 1회 가족 모임의 장을 만들어 준다. 또한 가족사진공모, 근로자 모습을 소재로 한 표어·포스터 공모전 등으로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곳 “한솔센트럴파크타워 신축공사현장”의 무재해비결이다.

복지·가족과 연계한 안전활동을 전개하는데 대해 최두선 안전과장은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집중관리하는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이 원인이 되어 재해가 발생할 확률은 27%에 불과하나, 그 외의 원인으로 70% 정도가 재해를 유발한다며, 무조건적인 안전관리보다는 통계학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무조건적이고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꼬집는다.

이밖에도 이 곳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인 지시보다는 관리 감독자가 술선수범하는 문화, 현장을 책임관리하는 문화가 뿌리내려 불안정한 장소는 즉시 개선조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협력사 현장소장 2명이 한 조가 되어 1주 1회씩 안전점검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이로써 무재해현장이 조성되어 노·사가 WinWin하는 안전보전이 정착되는 것이다.

끝으로,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오늘도 교과서적인 것에서 기초하



여 나만의 안전관리기법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최두선 안전과장과 항상 초심과 같은 마음으로 현장의 무재해를 일궈낸 차승규 소장에게서 새로운 건설안전문화가 창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최중덕 기자〉